

산청군 생비량면 방화지구 새뜰마을 준공

✎ 고동우 기자 | ⌚ 승인 2023.12.19

마을회관 신축, 주택 정비, 마을안길 정비, CCTV 및 소화전 설치 등 완료

산청군이 19일 생비량면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신축, 주택 정비, 마을안길·배수로·재래식 화장실·노후 및 불량담장 정비, CCTV 및 소화전 설치,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진행했다.



19일 산청군 생비량면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새뜰마을 준공식에서 이승화 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특히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민 화합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 중심부에 흉물로 남아 있던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공동작업장을 신축해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이재호 방화마을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경관이 개선돼 무척 기쁘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